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(11.11.)

□ 지금부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.

□ 조금 전 발표된 **10월 취업자 수**는 **전년동기 대비 13.9만명 증가**하여 **4개월 연속 두자릿 수 증가세***를 이어갔습니다.

* 취업자 증감(전년비, 만명): ('26.6)6.3 (7)10.8 (8)18.4 (9)11.3 **(10)13.9**

○ **9월 경상수지** 또한 **614억 6천만불 흑자**를 기록하며, 처음으로 월간 600억불을 넘어서며 **사상 최대치**를 **다시 한번 경신**했습니다.

□ 정부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"**더 큰 성장, 더 따뜻한 민생**"을 위해 **국가적 역량**을 **총동원**하겠습니다.

□ 첫째, "**더 큰 성장**"을 위한 **대도약 기반**을 **단단히** 다지겠습니다.

○ **잠재성장률 반등 흐름**을 이어갈 3대 메가프로젝트, 7대 SEED 등 **신산업 육성, 기업투자·혁신 지원,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**와 함께 **초혁신경제로의 전환**에도 **박차**를 가하겠습니다.

□ 둘째, **더 큰 성장**을 "**더 따뜻한 민생**"으로 이어가겠습니다.

○ **불평등**과 **양극화**를 심화시키는 **제도·관행** 등 **구조적 문제 해결**과 주거·일자리·서민금융 **3대 민생프로젝트**에 전력을 다해 **성장의 기회**와 **과실**을 **모두가 골고루** 누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.

[2027년 경제성장전략 추진방향]

□ 「**2027년 경제성장전략**」 역시 **양극화 완화**와 **잠재성장률 제고**를 통한 **지속가능성장 기반 마련**에 **중점**을 두겠습니다.

○ **대내외 여건변화**에 **신속히 대응**할 수 있도록 **32년만**에 **경제전망 주기**를 연 2회에서 **3회로 확대**하겠습니다.

- 전망주기 개편과 연계해 '**하반기 경제성장전략**'은 마련하지 않되, **수정전망 발표시** 달라진 경제상황 대응을 위한 **보완방안**을 **함께 제시**하겠습니다.

○ 오늘 논의를 시작으로 **범부처 협업**을 통해 **12월중 발표**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

[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신규과제 추진계획]

□ 이어서 「**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**」 **신규과제 추진계획**을 논의합니다.

○ **반도체**가 AI의 "**두뇌**"라면, **피지컬 AI는** 제조 현장에서 AI를 구현하는 "**몸**"입니다.

□ 피지컬 AI 구현의 핵심 부품인 **액추에이터***, **휴머노이드용 이차전지**는 **국산화·표준개발** 등**으로 **2030년까지 대규모 양산** 기반을 마련하고,

* 로봇의 팔·다리·손가락 등에 장착되어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부품
** K-로봇생태계 고도화 기술개발('27~'29년, 총 1,000억원), 배터리산업 경쟁력강화 기술개발('27~'31년, 총 2,714억원) 등

○ **차세대 센서**(온-센서 AI)는 **핵심 원천기술**의 **개발·실증***을 통해 **글로벌 시장**을 **선점**하겠습니다.

* 온-센서 AI 반도체 고도화 기술개발사업('27~'30년, 총 498억원) 등

[양극화 대응 추진방향]

□ 다음으로, "**더 따뜻한 민생**"을 위한 **양극화 대응 추진방향**을 논의합니다. **양극화의 골을 메우고 불평등의 벽을 낮추**는데 **힘을 모으겠습니다.**

○ **부총리인 제가 직접 팀장**을 맡아 **관계부처, 국책연구기관** 등과 '**양극화 대응 TF**'를 구성해 역량을 결집하겠습니다.

- **노동시장 이중구조, 산업 간, 지역 간, 세대 간, 사회 격차완화 작업반***을 통해 **문제해결형 핵심 정책과제**를 적극 **발굴·추진**하겠습니다.

* (총괄반) 재경부·복지부 1차관 공동팀장, (5대 분야별 작업반) 주관부처 차관 팀장

○ 발굴한 **과제**는 **즉시 추진, 내년 제도개선 및 추진, 사회적 논의선행** 등으로 나누어 추진해 **국민 체감도**를 높이고,

- **주요 핵심과제**는 **재정·세제·금융·규제개선** 등 **정책패키지**를 **집중 지원**하여 **성공모델**을 만들고 이를 **확산**해 나가겠습니다.

[국가계약을 통한 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]

□ **지역 간 양극화 해소**를 위해, **국가계약**을 통한 **비수도권 기업 우대방안**도 논의합니다.

○ **지역업체**와 **공동수급체**(컨소시엄)를 **구성**해야 하는 **국가발주 공사**의 **기준금액**을 **대폭 확대***하여 **지역기업 참여**를 높이고,

* 지역의무공동계약 발주기준 금액 상향: (現) 국가 88억원, 공공기관 265억원 미만 → (改) 300억원 미만

- **지역업체**의 **실제 공사 참여도**가 **입찰·낙찰 평가**에 **온전히 반영**되도록 **시공비율 인정 범위**도 **확대***하겠습니다.

* 시공비율(입·낙찰 평가시 인정되는 참여기업 지분율): (現) 시공능력평가액의 1배 내에서만 인정 → (改) 시공능력평가액의 2배 원칙(필요시 3배 이내)으로 확대

○ **물품·용역 적격심사** 시 **지방기업 가점**을 '**지방우대지수***(행안부)'에 따라 **권역별로 차등 부여****하고, **지방이전 중소기업**은 **경영상태 평가** 및 **납품실적 요건*****을 **우대**합니다.

* 전국 기초자치단체를 4개 권역(1권역:수도권 ~ 4권역:낙후지역)으로 지정·고시(행안부, '26.11.3)
** (예)지방이전 (1→4권역)3점 > (1→3권역)2점 > (1→2권역)1.5점 / 소재권역 (4권역)1.5점 > (3권역)1점 > (2권역)0.5점
*** 지방이전 중소기업의 납품실적 인정기간 확대(5→7년) 및 만점 기준 완화(기준실적의 100→50%)

[12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] [12월 이후 유류세 탄력세율 운용방안]

□ 끝으로, **중동전쟁**이 **장기화**되는 가운데 **다가오는 겨울**을 맞아 국민들의 **유류비 부담**을 **덜어드리기** 위한 방안을 논의합니다.

○ 이달 말 종료 예정인 **휘발유·경유·부탄**에 대한 **유류세 인하 조치**를 **내년 1월말까지 2개월 연장**하고,

○ **11월 14일 0시부터 적용**되는 **12차 석유 최고가격**은 오늘 **회의 결과**를 바탕으로 **국제유가 상황**과 **국민부담** 등을 **종합적**으로 **검토**하여 **11월 13일 오후 6시**에 발표하겠습니다.

□ 감사합니다.